

국보

게누키가타 스타일 장식이 있는 다치 검

장식이 화려한 이 타치 검은 훌륭한 12세기 장인의 솜씨를 보여주는 일품입니다. 칼날은 녹슬어 더 이상 무기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이 검의 의의는 본질적으로 아주 정교한 금속 부속품과 훌륭한 자개 세공의 예시라는 점에 있습니다. 칼자루와 코등이(자루와 칼날 사이에 위치하는 원형 또는 네모난 금속판), 기타 장식 요소의 장식 테두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어 검의 무게는 보기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이 검은 황궁 경비대가 소지했던 의식용 무기를 본떠 만든 것입니다. 이는 자루 부분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중앙에 구멍이 있는 ‘게누키가타 스타일(족집게형)’로 제작된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12세기 검은 거의 남아 있지 않으며, 이처럼 독특한 디자인의 목적은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칼집은 모든 면에 끝에서 끝까지 고양이와 물래 접근해 참새를 낚아채고 당당하게 자리를 뜨는 연속적인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장면은 금가루를 두툼하게 뿌린 검은 옷칠 배경에 자개 세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개 세공에는 청색 유리로 강조된 부분이 있는데, 이 유리는 검이 제작되었던 당시 값비싼 수입 재료였습니다. 정교하게 손으로 새긴 대나무의 디테일과 고양이의 표정은 장인의 숙련된 기술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세심하게 공들여 제작된 이 장면은 예술적 가치에 더해 중요한 역사적 내용을 보여줍니다. 고양이는 목줄을 착용한 모습으로 그려졌는데, 이를 통해 헤이안 시대(794~1185)에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고양이가 예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검에 새겨진 모티프에는 당시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2차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